

イフトストの日の10月11日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권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에 살짝 대어주세요. 의자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과 함께 있는 의자에 앉게 될 경우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을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 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9)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예금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은행 1005-201-776110 (예금주: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 보 세상 I 제19권 5호 통권 154호

2013년 5월 15일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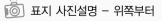
제작 크리콤 (T.02-2269-6224)

전화 02-950-0109 팩스 02-934-8069

Homepage www.nowonblind.or.kr

E-mail kbuhongbo@hanmail.net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 4동 157-33번지 2층



- I 시각장애인 안마 시연
- Ⅰ 전국심화재활교육
- ILG유플러스의 U+Vonation 낭독 봉사 중인 배우 조안 씨

05 MAY 2013 | VOL 154

I 우측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聞 테마 기획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상상이 되시나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카메라. 어울리나요? 흔히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카메라를 배우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사진작가가 되어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사진전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Sight Unseen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1층 전시관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유명 큐레이터인 더글라스 맥컬러우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해 사진에 점자로 설명이 된 작품, 사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 등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진전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의 사진 작품도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각장 애인 사진작가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입체적으로 표현된 사진 작품을 손으로 간사하느 시간자애이 어리이



▲ 사진전을 설명하는 큐레이터 더글라스 맥컬러우 씨



▲ 사진에 점자로 설명된 작품



▲ 시각장애인 사진작가의 작품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다관왕의 주인공!

설원을 누비는 시각장애인 스키선수 박종성 씨



지난 2월에는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치렀는 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스키 종목에서 다관왕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스키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성 선수 인데요 이번 "희망을 찾아서"에서는 박종성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박종성 선수는 스물 셋에 베제트 병에 걸려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제트 병이란 온몸에 염증이 나는 병인데요. 이 염증이 망막과 포도막까지 번져 시력이 상실되어 박종성 선수는 시각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서부터 동계종목 운동을 좋아했었던 **박종성 선수는 시각장애를 딛고 스키를 타게** 됩니다. 이후 매년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으로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궁금하시죠? 시각장애인 스키선수는 가이드와 2인 1조가 되어 가이드가 먼저 앞에서 스키를 타고, 시각장애인 선수가 뒤이어 스키를 타며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목표가 평창 동계올림픽 진출이라고 밝힌 박종성 선수, 박 선수의 앞날에 흰 눈처럼 밝은 일만 기득하길 바라면서 앞으 로 더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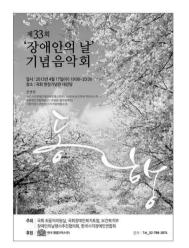
▲ 인터뷰에 응하는 박종성 선수



▲ 경기 중인 박종성 선수



▲ 가이드와 함께 경기 중인 모습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행" 음악회로 함께해요.

지난 4월 20일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동행"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

케스트라, 네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피아니스트로 거듭난 이희아 씨,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청각장애인 마술사 최성윤 씨.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의 다함께 청소년합창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장애를 딛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관객에게 인사 중인 이희아 씨



▲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감상 중인 관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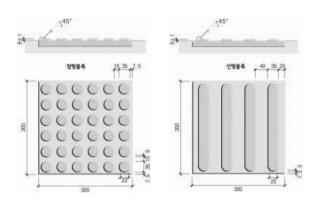


▲ 청각장애인 마술사 최성윤 씨



▲ 다함께합창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알고 계시나요?



▲ 표준 점자블록(점형블록, 선형블록)

점형블록: 위치표시용으로 대기지점이나 목적지점을 표시한다. 선형블록 : 방향표시용으로 방향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 복도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자표시판



시각장애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서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곳곳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이 가능한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점자블록, 신호등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려주는 **음향신호기**, 계단, 복도의 손잡이 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점자표시판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편의시설이 고장 나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점검요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시각장애인이 마음 편히 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단체사진



▲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중인 모습



4월 13일 시각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농촌으로 문화체험을 떠났습니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가족들과 경기도 이천 와우목장으로 떠나 소젖 짜기, 소에게 건초 주기, 트랙터 타기, 유기농 딸기 수확 등 농촌체험을 즐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더풀론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4월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LG유플러스는 "오디오북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했는데요.
LG유플러스 임직원, 아나운서 지망생, 홍보대사 조안 씨가 낭독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낭독봉사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착한 목소리로 가득 채우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스탠다드차타트은행,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로 제작한 오디오북 전달해

4월 18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2**를 마무리하고 오디오북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오디오북 제작을 해왔는데요

이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2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낭독봉사로 제작한** 오디오북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홍보대사 박유천 씨가 시각 장애인을 위해 낭독봉사를 하여 제작된 **오디오북 3,000권은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 낭독봉사를 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시각장애인이 지금보다 손쉽게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NOICEAE

오디오북을 전달하는 모습



